



에이즈 예방 위해 국가·지역사회·NGO간 협력 필요

글_ 한 소 희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ICAAP 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

2년마다 개최되는 아·태 에이즈 국제회의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섹션에 참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부족하게나마 주로 관심을 가진 각국 에이즈 예방 활동 사례와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사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동향 및 예방 활동

예방·간호·관리(지원)·치료의 다각적 측면에서 NGO 및 학계 연구자들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의 크기가 크지 않고, 한정된 발표시간으로 연구방법이 구체적으로 구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성매매여성/동성애자/상당수 내담자/학생 등 특정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접근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작은 지역단위에 대한 활동 사례일지라도 아웃리치 교육 순응의 증가, 콘돔 사용률 증가 등 결과 자료들은 대규모 예방 활동에 모티브가 되어줄 수 있겠다.

캄보디아의 예방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성매매 종사자(sex worker)를 찾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은 분명한 콘돔사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성병과 HIV 감염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또한 취약계층 특히 성매매 여성에 있어서의 HIV 감염의 성공적인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현재 1% 감염률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인도의 에이즈 발생 중심지인 집창촌지역(red-light district), 뭄바이와 첸나이에서는 과거 성매매 여성이었거나 현재 성매매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아웃리치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같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동질감 형성으로, 에이즈 예방 메시지 등 정보 전달에 대한 정보 순응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었다. 반면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이즈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방활동에 대한 노력 감소

로 HIV 확산 재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HIV 치료에 대한 접근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ART(antiretroviral treatment)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인 1.1백만의 14%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지원범위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간의 협력적이고 단계적인 예방 활동 전개만이 에이즈 예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 활동을 위한 노력 필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관리 초기부터 법제정, 업무협의 기구(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민간단체 지원, 치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염인 지원,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혈액안전 등과 같은 에이즈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들이 수행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외국의 경험과 최근의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에이즈 예방노력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폭넓은 에이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콘돔 배포사업, 무료 익명 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콘돔 무료 배포사업의 경우 에이즈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포스터, 라플릿 등을 항시 게시하고 있으며, 교육·상담을 통한 예방 메시지 전달을 통하여 그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에이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언어 및 시각 디자인을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NGO 예방 활동이 주 내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관·단체들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으며, 한 기관·단체의 독립적인 수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확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에이즈를 나와 무관한 병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 조언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ICAAP 프로그램

전체회의 (Plenary Sessions)	각국 연구자, 지역사회 리더,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HIV 역학 및 지역적 대응 (HIV Epidemic and Regional Response), '상호접근 (Cross Border Approaches)', '예방과 치료 (Prevention and Care in Community)' 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
포럼 (Forum)	'지역사회', 'HIV 감염인', '청소년' 포럼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관계자의 정보 공유 자리
심포지엄 (Symposia)	초청 연설시간의 주제 토론 자리
분과별 회의 (Satellite Meetings)	정부 및 NGO 관계자간 토론 자리
구두 발표 (Oral Session)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로 5개 Track의 주제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k A : 기본, 임상과학 (Basic and clinical Sciences) - Track B : 치료, 간호 및 지원 (Treatment, Care and Support) - Track C : 예방과 역학 (Prevention and Epidemiology) - Track D : 문화와 성 (Culture, Gender and Sexual Issues) - Track E : 정치, 경제와 사회적 노력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기술개발워크숍 (Skills Building Workshops)	HIV/AIDS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 및 향상, 효율적인 지역 프로그램 운영과 정부와 더불어 활동하는 NGO간 조언을 듣는 자리
가타	포스터 전시회 (Poster Presentations) 및 각국 단체 홍보부스 설치 운영